

##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가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매개변인으로 -

이 경 아<sup>†</sup>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평가가 매개하는지를 이론적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의 남녀 중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또래로부터의 수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기존중감 및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자기평가변인으로 정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래로부터의 수용여부는 또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그 외 척도들은 모두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자기평가가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전체집단에 대해 자기평가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기술로부터 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와 또래관계 질로부터 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 및 자기평가로부터 또래 괴롭힘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집단에 대한 자기평가의 완전매개모형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df=39, N=960)=242.125, p=.000$ ; GFI=.959; NFI=.952; TLI=.943; CFI=.959; RMSEA=.074).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자기평가의 매개모형은 청소년들의 또래 괴롭힘 현상을 이해하는데 경제적이고,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 괴롭힘,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 청소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아,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Tel : 02) 2123-6686, E-mail : ladylake@yonsei.ac.kr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학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적응 지표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 및 효능감을 발달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적절한 또래관계 양상을 조망하고, 이런 현상을 이끄는 데 관련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밝혀내는 일은 심리발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응적인 또래관계 중에서도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또래 괴롭힘의 문제이다. 또래 괴롭힘 현상은 서구에서는 Olweus(1978)가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국내에는 이지메라는 용어로 알려지다가 이후 따돌림, 왕따, 혹은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래 괴롭힘이란 공격성의 한 형태로 남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대개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행사하는 문제행동으로 정의된다.

미국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또래 괴롭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에 달했고, 또래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10.6%였으며, 6.3%의 학생은 가해와 피해 모두를 경험하는 등 총 2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또래 괴롭힘 피해 학생들이 보이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알아본 결과 이들의 학업 저하, 외로움, 복종적이고 철회된 행동, 공격성, 주장적-친사회적 행동의 저하

등이 서구문화권에서의 행동적, 학업적, 심리 사회적 피해양상과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또래 괴롭힘 현상은 지칭하는 용어나 표현이 다를 뿐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발발하고 유지되며 예방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또래 괴롭힘 관련 연구들은 주로 괴롭힘 현상에 대한 통계적 조사 혹은 또래 괴롭힘의 예측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크게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외로움 등 정서장애(Hawker & Boulton, 2000; Wolke, 2002), 사회적 거부(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학업실패(Junoven, Nishna, & Graham, 2000)와의 관련성, 또한 괴롭힘 가해 경험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Olweus, 1994)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요약된다.

또래 관계 문제들 가운데서 우정관계는 이제까지 또래 괴롭힘과 단순 상관만 비교되는 등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우정관계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 및 대인관계 친밀감을 형성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정관계는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친구의 수와 같은 양적인 요소 이외에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문혜신, 2001).

공감이나, 협동부재와 같은 사회기술상의 문제(Clarke & Kiselica, 1997) 및 낮은 자기존중감(양원경, 도현심, 1999), 내면화, 외면화 문제 행동(Egan & Perry, 1998) 역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과 깊이 관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인들은 대개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또래 괴롭힘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로 악순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또래 괴롭힘을 일으키는 변인들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또래 괴롭힘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또래관계의 질 혹은 자기평가 요인의 역할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학교장면에서 문제되고 있는 또래 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래 괴롭힘이 어떻게 발발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 요인이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조사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또래 괴롭힘이 가장 문제가 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해서 자기평가가 사회기술 및 또래 관계의 질로부터 또래 괴롭힘 경험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또래 괴롭힘과 사회기술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기술 부족가설, 즉 결핍 가설(deficit hypothesis)로 일컬어진다(Margalit, 1994). 결핍 가설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또래와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고(Asher, Hymel, & Renshaw, 1984), 또한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사회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철회될 수 있다(Coie & Koepl, 1990).

또래 괴롭힘 피해자 및 가해자 각각의 사회기술상의 특징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또래 괴롭힘 피해자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여 비효과적인 설득전략을 사용하고, 우정, 협동, 유머나 친사회적 기술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Hodges, Malone, & Perry, 1997). 이렇게 또래집단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동은 적절한 행동유형을 습득하지 못하므로 또래집단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또래 괴롭힘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 및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Horne & Socherman, 1996), 피해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Clarke & Kiselica, 1997). 공감 및 수용능력의 결여는 괴롭힘 가해 행동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반복적인 가해행동을 이끌 수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타인에 대한 지지능력이 결여된 채 성장하며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보다는 힘과 공격성을 사용하게 된다. 공감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가정은 Coleman과 Byrd(2003)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에 의하면 공감은 청소년시기의 우정발달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행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대개 왜곡된 공감양식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공감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 협동, 사회성, 이타행동과 같은 친사회 기술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점(이희경, 2002)에 비취볼 때 또래 괴롭힘 경험자들의 공감수준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 경험과 사회 기술간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 또래 괴롭힘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 청소년의 또래관계 측정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또래 집단 내에서 아동이 얼마나 수용 혹은 거부되는지를 조사하여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가 상호선택에 의해 생기는 이원적 관계(dyadic relationship)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친구 관계 또는 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은주, 2002). 많은 연구들에서는 또래관계 문제와 관련한 변인들 중 우정관계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도현심, 2000).

우정관계 측정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에서 Asher, Singleton과 Taylor(1982)는 또래로부터 거명을 받는 횟수로 우정을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Parker와 Asher(1993)가 우정관계를 측정할 때 기존의 일방적인 거명 대신 아동으로부터 친한 친구를 거명하게 한 뒤, 상대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우정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상호 거명을 통해 확인된 친구의 수와 더불어 우정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우정관계의 질적 측면이다. 즉, 상호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동료의식이나 친밀감을 가지는지, 지지 정도는 어떠한지, 갈등의 수준은 어떠한지가 우정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정관계는 돌봄, 갈등해결, 갈등과 반목, 도움과 지도, 동료의식 및 재충전, 친밀한 상호교류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혜신(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있어서 우정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정관계의 측정변인 중 동료애와 친밀감 요인 및 상호거명된 친구의 수를 사용하여 청소년 집단에서 우정관계가 또래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적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를 매개해 줌을 보였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들은 또래관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며, 동시에 보다 심각한 수준의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주변의 많은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쉽고, 나아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공격을 당하는 하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Dishion, Patterson, Stoolmiller, & Skinner, 1991).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친구가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인 아동은 보복당할 위험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친구가 없는 아동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도현심(2000)은 또래거부와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학생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보였다. 이처럼 또래거부와 또래 괴롭힘 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미루어 또래들이 싫어하는 아동들은 곧 또래에 의

해 괴롭힘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을 더욱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간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에서는 주로 변인간의 상관만을 보고 있으며, 우정의 측정 안에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인 우정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래 괴롭힘과 개인의 자기평가

또래 괴롭힘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인 특성의 하나로 자기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 및 그렇게 하려는 동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래의 집단적 공격 혹은 또래 괴롭힘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Hodges, Malone, & Perry, 1997). 이에 대해 Egan과 Perry(1998)는 자기존중감이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전략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존중감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크게 낮은 자기존중감이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와, 또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는 자기존중감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로 나뉘어진다. 우선, 또래 괴롭힘에 따른 낮은 자기존중감을 알아본 연구로 콕금지와 김근영(1997)에 의하면 낮은 자기 개념을 지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일탈 행동에 더 많이 개입된다. 이는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는 사회에 대한 복수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 일탈행동에 개입한다는 기존의 견해(Rigby & Cox, 1996)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대인관계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우정관계에서 친밀감이나 동료애의 발달을 제한하며, 결국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의 발달을 제한하게 된다.

자기존중감이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또래로부터의 괴롭힘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중재하기도 한다. Egan과 Perry(1998)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많고 사교적 기술이 결여되는 등 행동적 취약성이 높은 학생일지라도 높은 자기존중감 수준을 보여주는 건강한 자기배려(healthy self-regard)가 높은 학생은 또래의 공격을 당하기 보다는 단호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원경과 도현심(1999)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자기 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경험은 사회적 자기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존중감과 가장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이 총체적 자기존중감이 아닌 사회적 유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Egan과 Perry(1998)의 연구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의 전체 영역에 대한 관련성을 포함하기 보다는 또래 괴롭힘이 일어나는 학교장면과 관련있는 사회적 및 학업적 자기존중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행동양식은 크게 내면화 행동 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된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불안, 우울, 말이 없고 위축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양식과 관련이 있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은 주로 또래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뜻을 담아 쉽게 울음을 터트리고 불안해하며, 자신의 것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공격적인 또래들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가해아동의 공격성 표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Hodges, Malone, & Perry, 1997). 외현화 행동문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정직하지 못한 언행, 폭력행동, 시비걸기 등을 포함한다(Boivin & Hymel, 1997).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아동들은 외현화된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양식으로 인해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이은주, 2002). 공격성과 위축은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개인적 변인이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가해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서미정, 김경연, 2004), 반대로 공격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지며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짜증나고 긴장하게 하므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배아영, 이숙, 2006). 또한 위축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10-20% 정도가 위축된 행동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다고 밝혀져있다(Berk, 1997). Egan과 Perry

(1998)는 외현화, 내면화 문제 및 사회기술 부족 등의 행동적 위험요인이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을 일으키며 자아 존중감이 이를 증세함을 검증하였다.

분노나 공격성, 충동성 등은 또래 괴롭힘 가해자를 비롯한 비행 청소년에게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성격특질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조성호, 2000). 분노를 더 쉽게 경험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더 취약한 학생은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응적 행동보다는 공격적인 해결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또래 괴롭힘 가해자의 가해 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비행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존중감 및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내리는 주요한 평가적 가치를 가리킨다는 면에서 포괄적으로는 자기평가 차원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 경험과 의미있는 타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된다(Coopersmith, 1981; Harter, 1985; 양원경, 도현심, 1999). 이는 곧 자기존중감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가리킨다.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뿐 아니라 교사나 부모 등에 의한 평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 혹은 부모의 평정과 자기 자신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고 되었다. 따라서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평정결과는 자기자신에 대한 평

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 괴롭힘에 관한 자기 지각차원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내적인 긍정적 측면을 일컫는 자기 존중감과 부정적 문제행동 측면을 대표하는 내면화 문제행동 평가, 외현화 문제행동 평가를 통합하여 보는 것은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로부터 또래 괴롭힘으로 가는 과정을 매개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기존중감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자기평가 차원으로 정의하고자한다.

### 사회기술, 또래관계 질, 자기평가와 또래 괴롭힘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는 각각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기술과 또래관계의 질이 또래 괴롭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관계의 질이나 자기존중감 및 문제행동과 같은 자기평가 요인이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매개 혹은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되는 시사점을 통해 또래 괴롭힘이 발발하고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 제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렸을 때 보이는 내면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 등의 문제행동들은 학교 입학 후의 또래 괴롭힘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또래로부터의 거부를 매개로하여 괴롭힘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친구관계는 문제행동에서 실제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재하였다 (Schwartz, Dodge, Petit, & Bates, 2000).

또래 괴롭힘으로 가는 과정을 매개해주는 변인으로서 자기평가변인을 살펴본 것으로는 Egan과 Perry(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중 자기평가 요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낮은 자기존중감은 자기주장 혹은 자기방어 동기나 능력을 낮춤으로서 또래 괴롭힘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자기 존중감은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낮은 사회기술로 인해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재해준다. 즉, 행동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우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자기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자기 방어를 통해 또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또래의 괴롭힘과 사회적 자기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본 Boivin과 Hymel(1997)의 연구는 아동의 행동 특성에 따라 또래의 괴롭힘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또래의 괴롭힘과 낮은 사회적 자기 개념의 관계가 유의하였던 반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또래의 괴롭힘과 낮은 사회적 자기 개념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사회적 자기 개념으로부터 또래 괴롭힘에 이르는 경로를 중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평가 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연구문제 및 가설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 존중감은 또래관계 질과 사회기술로부터 또래 괴롭힘에 이르는

경로를 매개 혹은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들은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선행요인들로 알려져 왔다. 자기존중감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기 지각적 요인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기평가 요인은 또래관계 변인으로부터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최근 20년간 이뤄진 또래 괴롭힘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Hawker와 Boulton(2000)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자기존중감이 또래 괴롭힘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중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자기평가 요인의 매개 효과는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또래 괴롭힘 현상에 있어서 자기평가 요인이 포함된 이론적 모형 검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개인 및 또래차원 변인 중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 변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 변인이 자기평가 변인을 매개로 또래 괴롭힘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한지 모형검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가 지지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및 자기평가를 구성하는 측정요인들이 적절한 측정요인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와야 하며, 2)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에서 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고, 3) 자기평가에서 또래 괴롭힘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값이 유의미한 수준이며, 4)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7개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008명(남자 488명, 여자 5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래 거명 문항을 무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거나, 같은 반의 학생이 아닌 다른 친구의 이름을 거명하여 신뢰롭지 못한 자료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급의 자료는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질문지에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960명(남학생 482명, 여학생 478명)이었다.

### 측정도구

#### 또래 괴롭힘 경험

청소년들의 또래 괴롭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따돌림 가해행동 척도 및 피해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돌림 가해행동 척도(Bullying Behavior Scale)는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Neary와 Joseph(1994)가 개발한 것을 이춘재와 콕금주(2000)가 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6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ustin과 Joseph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이춘재와 콕금주(2000)의 연구에서는 .75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피해척도(Peer-Victimization Scale)는 또래 괴롭힘을 받는 피해자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Callaghan과 Joseph(1995)이 개발한 것이다. 4점 척도의 6문항에 관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Austin과 Joseph 등(1996)의 연구에서는

.83이었고, 이춘재와 콕금주(2000)의 연구에서는 .77이었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각 .84, .85였다.

###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총체적 자기존중감, 다른 사람의 친구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자기존중감,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태도인 가정적 자기존중감 및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느끼는 유능감인 학업적 자기존중감과 같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의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총점은 32점부터 1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장면에서의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는 총체적, 사회적, 학업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23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총체적 자기존중감이 .71, 사회적 자기존중감이 .86, 학업적 자기존중감은 .65였다.

### 문제행동평가

청소년의 문제행동평가를 알아보고자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2001)가 개발한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의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 행동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성문제, 정서불안정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위축, 신체증

상, 우울/불안은 내면화문제 척도를, 비행과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를 각각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행동평가척도의 문제행동 척도 중 신체증상을 제외한 내면화 문제에 해당하는 23개 문항 및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30개 문항, 총 5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K-YSR의 내적 합치도는 .63-.85로 보고되고 있으며(오경자와, 2001), 본 연구 자료에서 이용한 문제행동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사회기술

Gresham과 Elliott(1990)이 학생들의 사회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사회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사용하였다. 사회기술평정 척도는 교사용, 학생용, 부모용의 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으며, 3-18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원래 SSRS는 협동(cooperation), 주장(assertion), 책임감(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자기통제(self-control)로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학생용은 책임감을 제외한 4요인으로만 구성되어있다. 4개의 하위요인은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용 사회기술평정 척도의 협동, 주장, 공감 및 자기 통제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각 .73, .62, .78, .56으로 나타났다.

### 우정관계 질

또래간에 맺는 우정관계의 질적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Parker와 Asher(1993)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FQ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친구와의 관계에서 각 문항이 나타내 주는 특성이 얼마나 사실인지

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상호돌봄(validation and car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갈등과 반목(conflict and betrayal), 도움제공(help and guidance), 동료애(companionship and recreation), 친밀감(intimate exchange)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우정관계의 긍정적 요소이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동료애와 친밀감 문항들을 우정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내적합치도 계수는 동료애가 .80, 친밀감이 .91이었다.

#### 또래로부터의 수용, 상호수용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의 하나로 또래로부터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거명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리 학급에서 나와 친하게 지내는 반 친구의 이름을 5명씩 적도록 하였으며,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거명된 횟수를 합하여 또래로부터의 인기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급우간 상호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서로 친한 친구로 지적한 경우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사람의 0-5명까지 상호거명된 친구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명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었고, 그 중 3명이 자신을 친한 친구로서 지적했다면 그 사람은 총3명의 상호수용적 친구를 가지게 된다.

#### 자료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적 통계를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여 전체 자료에 대한 상관 및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AMOS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측정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또래 괴롭힘의 이론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론모형의 검증을 위해 우선 측정모형이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후 가정된 자기평가의 매개모형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대안모형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측정변인들의 평균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성별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또래 괴롭힘은 점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지각된 것을 나타낸다. 그 밖에 또래관계의 질이나 자기존중감, 사회기술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문제행동평가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한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공감,  $F_{(1,959)}=44.04, p<.001$ , 우정관계,  $F_{(1,959)}=58.84, p<.001$ , 또래상호수용,  $F_{(1,959)}=32.93, p<.001$ , 문제행동평가,  $F_{(1,959)}=6.54, p<.05$ 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자기존중감,  $F_{(1,959)}=3.98, p<.05$ , 괴롭힘 가해,  $F_{(1,959)}=12.36, p<.001$ , 괴롭힘 피해,  $F_{(1,959)}=11.85, p<.01$ ,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공감을 제외한 사회기술 변인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학생(n=482)	여학생(n=478)	전체(n=960)	F(1,959)	
또래관계 질	우정관계	6.34(1.71)	7.23(1.88)	6.78(1.85)	58.84***
	또래수용	4.76(2.34)	4.76(2.03)	4.76(2.19)	.00
	또래상호수용	2.93(1.38)	3.43(1.33)	3.18(1.38)	32.93***
사회기술	협동	1.22(.33)	1.22(.33)	1.22(.33)	.03
	자기주장	1.18(.30)	1.17(.31)	1.18(.30)	.13
	공감	1.38(.32)	1.51(.31)	1.44(.32)	44.04***
	자기통제	1.04(.29)	1.02(.28)	1.03(.29)	1.11
자기평가	자기존중감	9.69(1.23)	9.53(1.25)	9.61(1.25)	3.98*
	문제행동평가	5.40(.91)	5.55(.91)	5.47(.91)	6.54*
또래 괴롭힘	괴롭힘 가해	1.31(.34)	1.24(.33)	1.28(.34)	12.36***
	괴롭힘 피해	1.28(.33)	1.21(.31)	1.24(.32)	11.85**

\*  $p < .05$ , \*\*  $p < .01$ , \*\*\*  $p < .001$

( ) 안은 표준편차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또래 괴롭힘의 이론적 모형검증

##### 측정모형의 검증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이 자기평가를 매개 변인으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이론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였다,  $\chi^2(df=36, N=960)=240.826, p=.000; GFI=.959; NFI=.952; TLI=.937; CFI=.959; RMSEA=.077$ .

##### 자기평가의 매개효과 검증

자기평가가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결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전체 집단에 대해 자기평가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완전매개 모형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chi^2(df=39, N=960)=242.125, p=.000; GFI=.959; NFI=.952; TLI=.943; CFI=.959; RMSEA=.074$ .

전체 집단의 측정구조 및 이론 구조의 경로 계수와  $t$  검증치를 표 2에, 전체 집단에서 검증된 자기평가의 매개 효과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대안모형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할 만했고, 경로계수들이 유의한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더 나은 대안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기술에서 또래의 괴롭힘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또래관계의 질로부터 또래의 괴롭

표 2. 전체집단에 자기평가의 완전 매개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및 오차변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오차변량
<b>측정 구조</b>				
또래관계 질 → 우정관계	1.00	.30		
또래 괴롭힘 → 괴롭힘 피해	.99	.94	20.58***	.05
또래 괴롭힘 → 괴롭힘 가해	1.00	.91		
사회기술 → 자기주장	1.03	.91	30.81***	.03
사회기술 → 협동	1.00	.80		
사회기술 → 공감	.87	.71	23.29***	.04
사회기술 → 자기통제	.88	.80	26.99***	.03
또래관계 질 → 또래 상호수용	1.75	.97	7.05***	.25
또래관계 질 → 또래 수용	1.29	.72	9.03***	.14
자기평가 → 자기존중감	1.00	.83		
자기평가 → 문제행동평가	-.49	-.55	-12.87***	.04
<b>이론구조</b>				
또래관계 질 → 자기평가	.15	.08	2.34*	.06
사회기술 → 자기평가	2.42	.62	16.08***	.15
자기평가 → 또래 괴롭힘	-.13	-.45	-10.26***	.01
<b>공변량</b>				
사회기술 ↔ 또래관계 질	.01		2.35*	.01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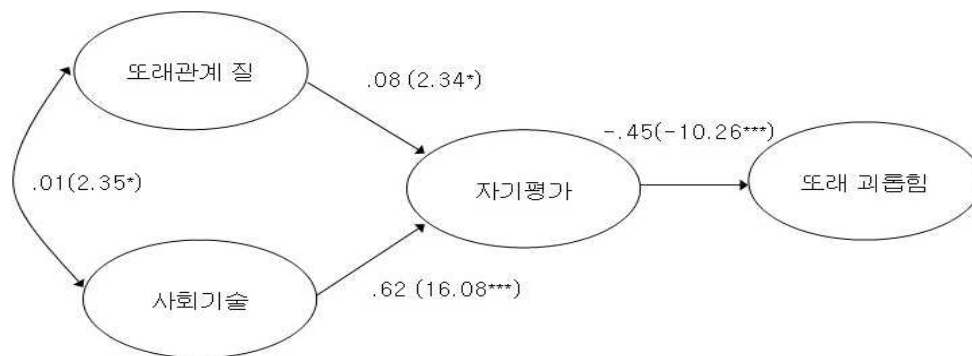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집단에 대한 자기평가의 완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t 검증치, \*  $p < .05$ , \*\*\*  $p < .001$

힘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자기평가의 부분매개 모형’과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또래 괴롭힘에 가산적인 영향을 주는 ‘단순효과 모형’을 ‘완전매개 모형’과 비교해 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단순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chi^2(df=40, N=960)=487.178, p=.000$ ; GFI=.925; NFI=.903; TLI=.877; CFI=.910; RMSEA=.108. 또한 또래관계 질로부터 따돌림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는 등 단순효과 모형은 따돌림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 효과 모형의 경우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론 변인간 경로를 살펴볼 때 또래관계 질로부터 또래 괴롭힘으로, 사회 기술로부터 또래 괴롭

힘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또래관계 질과 사회기술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고, 자기평가를 통한 간접경로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인 완전매개 효과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여 대안 모형들과의 카이제곱 차이( $\chi^2_{diff}$ )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 자기평가의 완전매개 효과 모형은 단순효과 모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분매개 효과 모형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분매개 모형의 경우 완전매개 모형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적합도 지수도 양호하므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이론적 모형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매개 모형에서 두 이론 변인으로부터 또래 괴롭힘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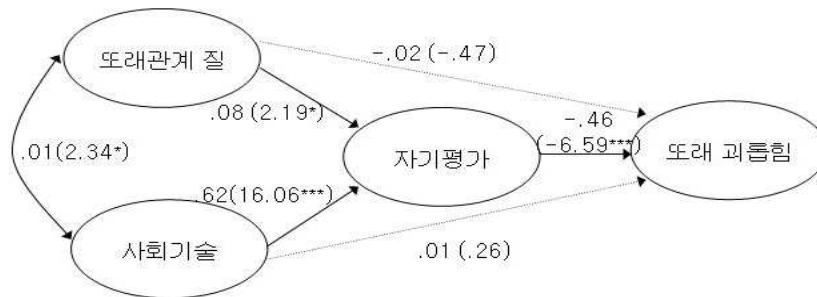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집단에 대한 자기평가의 부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t 검증치, \*  $p<.05$ , \*\*\*  $p<.001$

표 3. 자기평가의 매개효과에 대한 대안 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chi^2(df)$	$p$	$\Delta\chi^2(df)$	GFI	NFI	TLI	CFI	RMSEA
완전매개	242.125(39)	.000		.959	.952	.943	.959	.074
부분매개	241.871(37)	.000	.254	.959	.952	.939	.959	.076
단순효과	487.178(40)	.000	245.053	.925	.903	.877	.910	.108

완전매개: 자기평가의 완전매개 모형, 부분매개: 자기평가의 부분매개 모형,  
단순효과: 또래관계 질, 사회기술, 자기평가의 독립적 단순효과 모형

않았고 적합도 상에서도 본 연구에서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낮은 관계로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완전매개모형을 또래 괴롭힘에 관한 이론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대안 모형들의 비교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기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또래관계기술 혹은 개인적 측면에 편향되어 있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외상적인 경험이 되는 또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또래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되는 자기평가요인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과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을 야기하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이론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사회기술과 또래관계의 질이 자기평가를 매개로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이 취약한 사회기술이나, 우정관계의 질적 측면에 의해 유발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Coleman & Byrd, 2003; Hodges, Malone, & Perry, 1997; 도현심, 2000).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빈약한 사회기술이나, 또래관계에 있

어서의 낮은 질이 직접적으로 또래 괴롭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를 통해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이나 공감능력, 자기주장 및 자기통제와 같은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낮은 우정관계 등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 학업적, 총체적 자존증감의 저하 및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자기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또래 괴롭힘 피해를 당하게 하거나, 혹은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 및 문제행동 측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학생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기술 및 우정관계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적응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적 취약성이 높은 학생일지라도 자존증감 수준이 높은 학생은 또래 관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인 Egan과 Perry(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앞으로 또래 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간 강조해왔던 사회기술 훈련을 통한 중재나 또래관계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보다 개인차원의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존증감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내면화, 외현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기존중감과 관련해서는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관련한 다양한 영역 중 학교장면에서의 수행과 관련있는 사회적 자기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존중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면에서의 사회적, 학업적 유능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 경험의 부적응 문제를 밝히거나 다양한 차원의 심리사회변인들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로 조사해왔다. 한편 또래 괴롭힘 경험과 사회기술, 또래관계의 질과 자기평가를 포괄하는 변인들 간의 모형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결과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이 자기평가를 매개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바 또래 괴롭힘 경험에 있어서 자기평가 변인이 갖는 역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명명한 자기평가변인은 자기존중감 가운데 학교장면에서의 기능과 관련있는 사회적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존중감, 총체적 자기존중감 및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잠재변인으로서 재개념화 한 것이다. 또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장면에서의 많은 문제행동들은 크게 자기 보고식 평가와 타인(교사나 부모, 또래) 보고식 평가로 나뉘어 측정될 수 있는데,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평가와 자기 보고식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이 타인의 객관적 지각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지각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생

각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기평가 요인은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현상을 자기지각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학생을 위주로 연구하고, 이 학생의 피해경험에 대한 개입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가해자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가해간의 상관을 측정해 본 결과 남학생,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점수가 .8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학교 장면에서 괴롭힘 피해를 받은 학생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가해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가해행동을 많이 보이는 학생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대가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순수한 괴롭힘 피해 집단과 가해 집단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피해와 가해를 동일한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또래 괴롭힘 현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가해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잠재구인으로서 또래 괴롭힘 현상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기 횡단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사회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자기평가

및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나 선 후관계에 대한 설정은 가설적인 것이다. 특히, 사회기술이나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이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뿐 아니라 역의 관계, 즉,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으로부터 또래관계의 질적 문제가 유발되며, 마찬가지로 원리로 사회기술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관계는 장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집단이 달라지거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또래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이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또래 괴롭힘에 의해 사회기술이 낮아지고 또래관계의 질적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DeRosier, Kupersmidt와 Patterson (1994)의 연구 및 국내에서 실시된 김은정, 김인경과 정태연(2001), 이귀숙과 정현희(2005)의 연구는 또래 괴롭힘 현상에 대한 종단적 이해를 시도한 연구로서 고무적이며, 앞으로는 또래 괴롭힘 현상의 이해를 위한 종단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방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과 관련한 또래로부터의 수용, 상호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기명이 아닌 기명방식의 조사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문제로 학교장면에서는 분명히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표기하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지각하는 정도보다 약하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괴롭힘 경험의 기술평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것으로부터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과 사회기술이 자기평가를 매개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경험 및 또래관계의 질적 차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신뢰로운 측정방법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가해행동의 높은 상관관이 보여주듯 두 문제행동에는 높은 공존병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가해행동을 보이는 집단 간의 차이를 가정하지 않은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다. 이귀숙과 정현희(2005)의 연구에서 여자 중학생의 따돌림 유형을 군집분석 한 결과 가해 및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 모두 평균수준의 집단, 가해경험이 높고 피해경험이 중간인 집단으로 나뉘며 이중 마지막 군집의 집단이 가장 많은 문제를 보였다는 사실은 또래 괴롭힘이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차원과 자기평가 차원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경로와 또래 괴롭힘 가해에 미치는 경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또래 괴롭힘 현상의 다양한 경우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학생집단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시기에서 중학생 시기로, 중학생 시기에서 고등학생 시기로 옮겨가는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

다. 아직 사회기술의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중학생 집단의 경우 사회기술이 높다고 해서 곧 질 높은 우정관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두 요인은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매개로 하여 또래 괴롭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집단만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발달적 추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기술뿐 아니라,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과 자기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관련 문제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들은 주로 사회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평가와 같은 성격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에서 보다 덜 다루지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 괴롭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부적응적 행동의 교정이외에도 자기평가를 다루어주는 부분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금주, 김근영 (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연구(II): 자기 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11.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307-322.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배아영, 이 숙 (200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대한가정학회지**, 44(4), 101-109.

서미정, 김경연 (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16.

오경자, 하은혜, 이해란, 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귀숙, 정현희 (2005). 여자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심리사회적 적응: 2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17.

이은주 (2002). 내·외향적 행동문제와 집단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15(2), 345-363.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65-80.

이희경 (2002).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6(4), 23-40.

- 조성호 (2000).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Asher, S. R., Singleton, L. C., & Taylor, A. R. (1982). *Acceptance versus friendship: A longitudinal study of racial integration*. In G. W. Ladd(Chair), Racial integration and mainstreaming: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Bukowski, W. M., Newcomb, A., & Hartup,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Clarke, E. A., & Kiselica, M. S. (1997). A systemic counseling approach to the problem of bullying.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31, 310-325.
- Coie, J. D., & Koeppl, G.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rejected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England: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Coleman, P. K., & Byrd, C. P. (2003). Interpersonal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4), 301-314.
-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Rosier, P., Kupersmidt, J., & Patterson, C. J. (1994).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session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Pittsburgh, PA.
- Dishion, T. J., Patterson, G. R., Stoolmiller, M., & Skinner, M. L.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72-180.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41(4), 441-455.
- Hodges, E. 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 Psychology*, 33, 1032-1039.
- Horne, A. M., & Socherman, R. (1996). Profiles of a bully: Who would do such a thing? *Educational Horizons*. Winter, 77-83.
- Junoven, J., Nishina, A., & Graham, S. (2000). Peer harassm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choo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349-359.
- Margalit, M. (1994). *Loneliness amo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ory, research, coping and intervention*. N.Y.: Springer-Verlag.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2100.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Wiley).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r, J. G.,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4), 609-612.
- Schwartz, D., Dodge, K., Petit, G., & Bates, J. (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46-662.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Wolke, D. (2002). Does bullying cause emotional problem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teenagers. *The Journal of Pediatrics*, 140(3), 376.
- 원고접수일 : 2008. 1. 21.  
게재결정일 : 2008. 3. 28.

## The effect of social skill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on peer victimiza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valuation

Kyung-Ah Lee

Yo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val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peer victimization. 960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about peer victimization, social skill,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peer acceptance, self-evaluation which means self-esteem and self evaluation of problem behaviors. Data was obtained in the form of self-reports, except the peer acceptance scale collected from peer nomination proces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The results showed, as predicted, the pathway from social skill,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via self-evaluation to peer victimization showed significantly good model fit( $\chi^2(df=39, N=960)=242.125, p=.000$ ; GFI=.959; NFI=.952; TLI=.943; CFI=.959; RMSEA=.074). Complete mediating model of self-evaluation is parsimonious and good model in understanding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social skill,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self-evaluation, adolescent.